



용의 이빨처럼 날카로운 봉우리들이 연이어 솟아 긴 성벽을 이룬 용이장성. 백두대간의 힘찬 기상이 느껴지는 설악은 우리 민족의 깨끗한 의지를 닮았다.

산세·식생 모두가 '보공'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66) 설악산 지역 사찰들



금강초롱.

원래 고구려 영토였던 설악과 오대산 지역은 신라 진흥왕 때 신라 땅이 되었고, 그 후 진덕여왕 연간에 자장율사가 이 지역에 들어와 절을 지었다. 설악의 백담사와 봉정암, 오대산의 상원사, 태백산의 정암사가 그 절들이다. 옛 터 수복을 노리는 고구려의 유민들을 잠재우기 위한 지정학적인 요인도 있었을 것이다. 불국토사상을 내세운 자장의 생각이 그러했고, 훗날 변방에다 화염십찰을 세운 의상의 뜻도 그러했다.

백담사의 창건 당시 이름은 한계사(寒溪寺). 조선조에 설정대사가 소실된 옛 절을 복원하면서 계곡에 널려진 수많은 담(潭)을 보고 '백담사'라는 새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백담사는 산중사찰이지만, 하천변에 터를 잡은 탓으로 전체적으로 허벌어진 느낌을 준다. 게다가 경내외에 나무가 없어서 산중사찰이 갖는 그윽함이나 아늑함이 부족하다.

그런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너와지붕을 한 농암당이다. 경내 곳곳에 활용하고 있는 농암당은 기와 대신 너와를 올린 전형적인 팔작 건물로, 사투 이색적이다. 기와나 동기와보다 소재면에서 매우 친환경적이다. 산중암자나 토굴에서 고려해볼 직하다.

백담사 수렴동계곡 입구에 보(湖) 형태의 잠수교가 있고, 보 가운데 자연석으로 증계형 어도(魚道)를 만들었다. 어도는 보 때문에 상류로 오르지 못하는 물고기들을 위해 만든 물길이다. 절에서 보를 만들 때는 반드시 어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생태시대의 진정한 방생이 아닌가 싶다.

백담사에서 영시암까지는 3.5km. 길가에 좋은 평탄한 숲길이다. 흐호림 가운데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역시 금강송이다. 활엽수와 영토전쟁에서 밀려나 계곡 가장자리에다 자기 영토를 마련한 것이다. 고사목들도 가끔 눈에 띈다. 고사목이라고 해서 숲속에서 무위도식하지는 않는다. 버섯과 이끼에게는 살터를 제공하고, 곤충의 애벌레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새들에게는 보금자리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병조희풀은 이름과는 달리 풀이 아니라 나무이다.

수렴동계곡 입구에 어도(魚道) 설치 진정한 방생 본보기 너와로 지붕 올린 '농암당' 산중암자·토굴의 모델될 만 영시암·오세암·봉정암 등 태양 발전 이용 친환경 생활

키가 1m에 불과하지만, 해발 500~1500m 산간을 좋아한다. 양치기 읍지를 가리지 않고 내한성이 강해서 어디에서나 잘 자란다.

내설악지역에는 총 11종의 파충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아무르장지뱀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아무르장지뱀은 몸통과 꼬리 길이가 각각 10cm 안팎이다. 숲길 옆 잡초가 우거진 곳이나 햇볕이 잘 드는 능선이나 뚝발 등이다.

영시암은 조선 숙종 때 창건되었으나, 한국전쟁 때 소실되고 말았다. 근래 복원불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생태보전이 우선되는 곳에서는 불사를 하더라도 본래 있던 절터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자연에 대한 예의이다.

이곳 영시암을 비롯해 오세암과 봉정암은 모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세 암자의 전기는 석유를 이용한 발전기와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기로 얻어내고 있다. 태양광 발전의 특징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화학연

료를 사용하지 않고, 무한한 태양광 에너지를 쓴다는 점,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 시스템이 단순해서 작동이나 보수가 쉽다는 점이 있다.

설악산은 내설악과 외설악으로 나누어진다. 수렴동계곡은 내설악에서 경승이 가장 뛰어난 계곡이다. 그러나, 지난 여름의 집중호우로 계곡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산사태는 산정상부의 오목(凹) 지형에 집중된 강수가 암반층을 덮고 있던 토층을 분리시켜 슬라이딩되면서 일어났다. 토사와 뿌리 뽑힌 나무들은 거센 물길을 따라 떠나려와 2차 피해를 발생시켰다.

설악산의 초가을은 버섯의 계절이다. 영시암에서 오세암에 이르는 구간에서는 다람쥐눈물버섯, 끈적긴뿌리버섯, 콩알버섯, 운지버섯, 여름노타리버섯 등 10 종류가 관찰되었다.

이 지역의 다람쥐는 등산객들이나 신도들이 던져 주는 빵이나 과자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다람쥐에게는 적절치 않은 먹이들이다. 이것들이 체내에 축적되면 예상치 못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주는 먹이에 길들여져 도토리나 같은 야생의 먹이를 외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다람쥐들이 도토리나 상수리 같은 종자를 멀리 운반해주지 못하면 참나무들이 쇠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세암은 신라 선덕여왕 13년(647) 자장율사가 이곳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하고 '관음암(觀音庵)'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창건했다고 한다.

포유류는 직접 목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배설물이나 족적으로 서식여부를 확인하거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오세암 거사의 말을 빌리면, 오세암 맞은 편 만경대 암봉지역에서 산양의 배설물이 자주 관찰된다고 한다.

설악산은 남한에서 산양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산양은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거의 변화하지 않은 채 태초의 원시적 형태 그대로의



기와 대신 너와로 지붕을 올린 백담사 '농암당'.



눈잣나무군락.



산양.

촬영=박기림

봉정암이 자리한 곳은 해발 1244m로, 해발 1400m에 자리한 지리산 법계사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한국전쟁 때 피해를 당해 폐사되다시피 했던 것을 근래 정법스님이 원력을 세워 도량을 일신시켰다.

봉정암 주변과 대청봉 구간에서 보는 꽃 핀 초본들은 금강초롱, 투구꽃, 구절초, 당귀꽃, 산부추, 진돌찌, 용담, 미역취, 산부추, 솔체꽃, 여로 등이다. 목본으로는 눈잣나무, 주목, 측백나무, 거제수나무, 구상나무, 탐불오리나무, 분비나무, 철쭉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대청봉 지역은 눈잣나무의 남쪽 한계 분포지이다. 눈잣나무는 키가 20m를 웃도는 다른 잣나무와는 달리 겨우 5m 정도에 못미치는 난장이 고산 수목이다. 눈보라가 때서운 고산지역에서 산다고, 또는 나무 모양이 누운 듯하다고 '눈잣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다. 대청봉 안부에 무리 지어 땅에 엎드린듯이 자라는 눈잣나무의 생태에서 생명체의 의경을 느끼게 된다.

내설악에는 알락그늘나비, 조흰뱀나비, 홍출나비, 신선나비, 북방녹색부추나비 등 고산지역의 나비들이 출현한다. 이번 조사기간 동안에는 봉정암 주변에서 알락그늘나비와 조흰뱀나비가 관찰되었다.

설악산에는 여러 종류의 딱정벌레들이 서식하는데, 봉정암 경내에서 발견된 수염하늘소, 대청봉에서 관찰된 산길앞잡이, 백담계곡 길에서 관찰된 홍기슴풀색하늘소 등이 모두 딱정벌레에 속한다.

글·사진=김재철(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21세기 불교 위상 제고를 위한 중앙승가대학교의 발전 방향'



귀의 삼보하옵고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에서 모교의 발전방향 모색의 일환으로 '21세기 불교 위상 제고를 위한 중앙승가대학교의 발전 방향'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제방대덕스님과 불자님들께서 두루 참석하시어 21세기 불교발전 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제 목 : '21세기 불교 위상 제고를 위한 중앙승가대학교의 발전 방향'
- 기조연설 : 종범스님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 사 회 : 김상영 교수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 제1주제 : '중앙승가대학교가 불교 현대화에 미친 영향'
발표 : 보각스님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미산스님 (중앙승가대학교 포교사회학과 교수)
- 제2주제 : '미래지향적 승가교육'
발표 : 유승무 교수 (중앙승가대학교 포교사회학과 교수) / 토론 : 윤원철 교수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 제3주제 : '중앙승가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발표 : 김응철 교수 (중앙승가대학교 포교사회학과 교수) / 토론 : 지광스님 (능인선원 원장)

- 일 시 : 불기2550(2006)년 9월 26일 오후 2시
- 장 소 :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지하 2층) 국제공연장
- 주 최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신문, 법보신문, 주간불교
- 주 관 :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 총학생회, 대학원 동문회, 원우회, 교수협의회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 http://ob.sangha.ac.kr/ ☎ 02)922-7881, 929-7110 Fax 02)929-6919

